

W_F_020

멜 들었던 굽아주는 도체비

2016년 11월 24일, 구좌읍 행원리 행원리노인회관, 송정희 조사.
홍성하(남, 1932년생, 구좌읍 행원리)

[제보자] 옛날에 지금 행원리 그때 이조합에 박홍건이倫 헌 하르방이 살았수다게. 그때 그 하르방이 살았는데 그 하르방이 바당에도 부지런허곡, 육지에도 부지런허곡, 농 사도 많이 지고 허는 하르방인디 이 바당에 더멘못이倫 헌 딜 강 갤 만들었수다. 개. 개는 이제 그 울타리를 바당에 훈쪽부터 싸서 멜 골은 거 들면은 이제 족바지로 걸이는 개 개 개 들었는디 그 집안에 도체비란 걸 모셔난 모양입니다. 도체비.

경 헷어 이제 그 도체비가 이제 이제 부엌에 밥을 허레 갈 때에도 탁 솟전에 ?만히 앗안 잇는 눈썹이주 눈썹에 딱 앗아 잇는 셈 웬곡. 또 때가 웬면은 이제 게 멜 들었던 허민 또 그 꿈에라도 도체비가 나서 멜 걸리레 가라고 일러주곡. 이렇게 헤서 그 상당히 많이 모셔서 죽 헤영 승승장구해 헷입주게.

그러다가 뭐 이젠 그 이제는 그때가 뭔 왜냐면 그니깐 이제 사람 사람이 이제는 시대가 개명허곡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시대에 따라 가니깐 것도 자연히 엊 어져 불곡. 그렇게 해서 이제 펜안히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후손덜은 결국은 이제 다 육지로 가불곡. 이제 막 쫌 어려운 생활을 지내고 잇수다. 지금 현재. 현재 현재 그렇게 해서.

[조사자] 그 아까 게가 뭐꽈? 개.

[제보자] 돌담으로 둘러쌓. 돌담으로 둘러싸그네. 돌담을 쌀 거 아녀요. 돌담을 싸게 웬민 물이 들게 웬민 그 우이로 물이 물이 들어오거든요.

[조사자] 물이 나가면은.

[제보자] 나가면은.

[조사자] 멜은 못 나가고.

[제보자] 멜은 못 나가곡 그걸 그렇게.

[조사자] 그걸 돌담을 쌓 거. 그걸 개라고. 그 분은 아까 그 분은 도체비 모신 분은 어떻 허당 도체비 모신 거마씸?

[제보자]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미사마 모시듯이 일본사람 가미사마 모시듯이 이렇게.

[조사자] 집에서만?

[제보자] 어.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그렇게 모시 모시는 거주.

- 핵심어 : 구좌읍 행원리, 도체비, 멜, 돌담, 바다, 개